

요동치는 미국적 추상 속 서예 일필휘지가 묻어난다

October 6, 2016 | 손영옥 기자

요동치는 미국적 추상 속 서예 일필휘지가 묻어난다

요절 작가 최옥경 조명 ‘-미국시절 1960-70년대’ 전

몽개듯 칠한 화려한 색채, 분방한 붓질, 촘촘듯 유려한 곡면의 경계... 그렇다. 그는 미국 유학 시절 당시 화단에 군림했던 잭슨 폴록 같은 추상표현주의 화가들의 영향을 받았다. 잠재의식의 분출과 공격적 제스처, 특히 색면이 드러난다는 점에서는 윌렘 드 쿠닝이 연상된다.



양식의 영향을 받으며 자신만의 조형양식을 구축하던 시기의 작품 70여점을 선보이고 있다.

그런데 다시 전시장을 돌면 ‘행위가 요동치는 미국적 추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무엇이 있



‘성난 여인’(캔버스에 유채, 1966년작), 국제갤러리 제공

요절 작가 최옥경(1940~1985·사진)의 미국 시절을 조명하는 개인전에서 만난 회화 작품들의 첫인상은 그랬다. ‘최옥경: 미국시절 1960-70년대’라는 타이틀이 붙은 전시는 그가 서울대 미대를 졸업하고 유학을 간 1963년부터 완전 귀국한 78년까지 15년 동안 서구적 미술

다. 그것은 색이기도 하고, 붓질인 것 같기도 하다. 그가 쓰는 색속에는 노랑, 녹색, 검정, 주황, 빨강 등 전통의 오방색이 고스란히 들어있다. 분방한 색면 위로 형태를 만들 듯 그는 검은색 혹은 붉은색의 붓질은 서예의 일필휘지를 연상시킨다.

최옥경의 개인사가 답을 준다. 어린 시절부터 그림에 재능을 보이자 부모는 열 살 때부터 부부 동양화가인 운보 김기창과 우향 박래현의 화실에서 미술지도를 받게 했다.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 최옥경만의 원색은 탄생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는 71년 일시 귀국해 3년간 머물 때 더욱 적극적으로 서예와 민화, 단청의 색을 도입하며 색채를 맡고 갔다.

한국에서 1970년대는 중간색을 쓰는 단색화가 지배하던 시기였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이번 전시에선 베트남전쟁, 마틴 루터 킹 목사 암살 등으로 출렁거렸던 미국 사회 현실을 직시하며 미국판 민중미술 같은 사회 참여적 작품을 그렸던 최옥경의 알려지지 않은 모습도 만날 수 있다.

최옥경은 작품 ‘하동마을’을 한상훈 전 국제청장이 차장이던 2007년 인사 청탁성 선물로 전 군포 당시 국제청장에게 전달한 것이 알려져 유명세를 탔다. 그런 스캔들에 묻히기엔 주류의 바깥에서 살면서도 원색의 추상을 고집했던 작품세계가 돌출해 보인다. 귀국해 후학을 가르치며 왕성한 개인전을 펴던 그는 45세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국제갤러리에서 30일까지.

손영옥 선임기자
yosohn@kmib.co.kr